

第六回 國會定期會議速記錄 第五十二號 國會事務處

附紀四二八三年三月十四日(火)上午十時

議事日程 (第五十二次會議錄)

- 一、第五十一次會議錄通過
- 二、報告事項
- 三、大韓民國憲法改正案
- 四、國會編制選舉法案 第二總會
- 五、國有財產法案 第二總會

討論用案件
大韓民國憲法改正案

(上午十時十五分開議)

○議長(申翼熙) 그대면 지금으로부터 第五十二次 會議을 始作합니다 第五十一次 會議錄을 朗讀합니다

○議長(申翼熙) 會議錄에 簽名하시거나 簽名하지 않으신가

○洪鍾禧議長 國會編制 任明議長에 關한 句節이 있는 條樣같은게 그것은 國會編制의 任期延長이 아니라 選舉延期라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議長(申翼熙) 이 事實에도 하겠습니까

○議長(申翼熙) 是立하자고 하는게 내가 再請합니다 再請한 일이 없어야

○議長(申翼熙) 是立問題라는것은... 會議錄이라는 것은 그대도 議會 그대도 簽名하시겠습니까

○議長(申翼熙) 이 事實에도 하겠습니까

○議長(申翼熙) 是立하자고 하는게 내가 再請합니다 再請한 일이 없어야

○議長(申翼熙) 是立問題라는것은... 會議錄이라는 것은 그대도 議會 그대도 簽名하시겠습니까

이 以外에 다른 議案이오면 接受해서 通過합니다

다음은 報告事項입니다

○議長(申翼熙) 報告 件件 覽을 드립니다

三月十一日附呈 政府으로부터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을 國會에 運付해 覽합니다

附紀四二八三年三月十一日 國務總理 李 純 奏

國會議長 申 翼 熙 野下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國會運付件

附紀四二八三年二月二十五日 貴國會으로부터 移送된 憲法法案은 慎重히 審議한 結果 政府는 移送案에 對하여는 別紙와 같은 理由로 異議를 붙이지 않겠나이다는 結論에 到達 하였으므로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憲法 第四十一條에 依하여 茲에 運付 하오니 再議에 付하여주시길 祈請합니다

本件에 關한 異議는 大端히 分派이 많을 나다 시고 細細하고 있는 것이나 分派는 大體로 是하와 否하에 依하여 나뉘나

○議長(申翼熙) 是하와 否하에 依하여 나뉘는 것이 國務總理에게 口頭로 傳達에 大體로 重要한 報告가 致寸寸 以內에는 是하와 否하에 依하여 나뉘나

그대시 國務總理의 稟請으로 報告하되에 本件시 致書를 朗讀해야 되겠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議事日程의 進行은 斷斷 기대리가 望합니다 그러면 그報告가 우리 本會議에 到着하도록 暫時동안 休會합니다

(「宣布해 주세요」하는이 있음)

그러면 暫時동안 休會하오

(上午十時五十三分會議中止)

○議長(申翼熙) 應答합니다 應答해 주세요

國務總理의 開會합니다

시상은 여러분이 다 보신 바와같이 國務總理의 稟見으로 大統領의 報告가 是하와 否하에 依하여 別紙와 같이 宣布하였는 것이나 會間 報告事項 等에 於하여 宣布하였는 것이 있어서 休會를 여러분에게 宣布하였는 것입니다

그런데 及其也 이 便紙가 있는에 이 便紙는 國會議長에게 大統領이 便紙를 呈上하시나

그러나 이것은 公의 關係가 있으니까 公議입니다

예마침 國務總理는 外賓의 外에서 已의 事務로 簽名합니다 그러면 是하와 否하에 依하여 鄭重한 稟請에서 是하와 否하에 依하여 나뉘나

報告者

現在 國會에서 改憲問題討論으로 將은 時日을 延擱하여 온바 國會에서 日字가 臨迫한中 新年度 預算案과 選舉法案 租稅法案 等 案件을 速히 通過하여야 할 必要上 多少의 時日을 要求할 것인데 改憲案의

○議長(申翼熙) 是하와 否하에 依하여 나뉘는 것이 國務總理에게 口頭로 傳達에 大體로 重要한 報告가 致寸寸 以內에는 是하와 否하에 依하여 나뉘나

그대시 國務總理의 稟請으로 報告하되에 本件시 致書를 朗讀해야 되겠다고 그러므로

落舟也 後에 國會議員 諸位가 各各 演說
 準備上 緊急를 爲하야 分散의면 이時機에
 國事上 莫大한 障礙가 있을것이므로 國會
 總選舉 日字를 今六月晦日 以內로 延期한
 이 適當한것을 玆에 提議하니 速히 討論
 決定의기를 要請하는 바입니다
 以上과같이 延期 하는것이 國會議員 諸位
 에게도 便宜 할것이요 緊急한 案件을 通
 過하기에도 憂慮點이 없을것이니 議員 諸
 位가 協議하야 可決하면 速히 公布해서
 至今 總選舉 準備上 虛費가 없도록 할것
 입니다

續紀四二八三年三月十四日
 大統領 李承晚
 國會議長 閣下

그러면 大統領의 勅諭를 朗讀해 드린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洪復議員의 報告입니다
 ○洪復議員 어제 제가 報告事項이 끝날까
 까지 參府 못해서 國務總理의 勅諭에 對한
 어기를 어제 말함여를 復會가 없어서 못하
 였습니다
 國務總理가 續紀四二八三年度 豫算審査를 從
 速히 해달라는 要請이 있었읍니다 當然히
 國會로서는 從速히 아니라 時急히 하여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政府가 豫算審査
 내공고 豫算審査를 要請할때에는 반드시 그
 年度에 直한 施政演說이 있어야 피리라고
 믿읍니다 勿論 豫算說明으로 보아서 施政의
 大綱을 알수가 있읍니다와는 實際에 있어서
 豫算審査 一一히 豫算演說에 時間이... 幾久
 한 時間을 要합니다 아아 私의으로 議長에

계 要請이 있었는지 查함니다라는 政府當局
 으로서는 豫算審査에 對해서 何等 減意가
 없다는것을 내가 어기지 言明해 두고 싶습
 니다 間接으로 施政演說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은 어찌할 아아 傳聲된 것인데 아직까지
 施政演說에 對한 通知가 있는지 없는지
 으름니다라는 國會에 나와서 國務總理 以下
 各長官이 施政演說을 한일이 없읍니다
 施政演說을 한다면 우리가 그豫算을 檢討해
 서 豫算範圍內에서 是正할 範圍를 親知할수
 가 있읍니다

最近 閣下에 經濟安定委員會에서 續紀四二八
 三年度 豫算에 있어서 大綱的 修正을 해서
 이것이 將次 國會에 修正案으로 나오리라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豫算을
 마쳐두고 修正案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修正案이 나오리라고 하는것은 이제 나와있
 는 豫算에 이것은 豫考資料에 지나지 못한
 다는것을 政府는 이것을 잘 알어주세요

豫算參考 資料를 提供하고 豫算審査를 하라
 는 이런것은 官語通斷이요 政府로서는 좀
 精神을 가다듬어서 國政을 爲해서 임해주시
 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豫算修正案을 내겠다는 復案을 가지
 고 國會에서 豫算을 從速히 審議해 달라
 니구나 國議의 實地이라 할지 施政의 實地
 이라 할지 나는 大膽히 實地스럽게 생각합
 니다 좀더 誠實한 가지고 確定的 豫算案을
 國會에 내놓아 國會에 내는 豫算等은 一字
 一句의 修正도 없어야 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修正案을 내겠다는 분을
 이 이것을 間接의으로 查함는지 모르겠읍니

다 政은 안될지도 모르겠읍니다만 大의
 修正을 해서 修正案이 나오리라는 말을 間
 接의으로 말하십니다 이만한 現實에 있는게
 우리를 보고 豫算을 從速히 審議해 달라
 大膽히 實地스럽게 하라 저는 豫算審査에 應
 하기전에 반드시 國務總理의 全般에 直한
 施政演說 各部長官의 各部門에 對한 施政演
 說이 있기전에 豫算을 審查할수 없다는것
 을 말씀해 놓읍니다

○續紀(申露熙) 아까 報告한 朗讀한 勅諭
 의 說明은 드리지 않읍니다만 여러분이
 오신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總選舉를
 六月 그금안으로 實行할 豫想이니 國會에서
 그렇게 알도록 準備的 通知를 한다는 말은
 인데 어찌까지나 議員 여러분이 아시는 바
 와같이 選舉法의 勸導이어서 公告할 朗日이
 지난뒤야야 選舉를 實施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음 여러분이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가기對한 希望입니다」라고 發言한
 請하는이 있음)
 ○徐萬錫議員 大統領 閣下께서 우리 國會議
 員의 選擇에 關한 問題가 많이 發露해서요
 그러한 決定을 해서 勸諭를 보내실줄 합니
 다 至極히 適當하신 措置라고 저희는 믿고
 있읍니다 그럼에 제가 여러 對해서 政府에
 希望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어찌서 이러
 한 現實이 議員과 立憲捕者 가운데에서
 있는지 알수없어요 여러분도 다 目前에 보
 였고 또한 實地로 勸諭를 들으셨으리라고
 믿읍니다만 地方에서 選擇職이 豫算 審查서
 있다는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면 果然 그것

○金教習議員 우리 그렇게 말 못하게 할 것까
지야 없지 않소 우리 自由黨 國氣에 對해서
말이지요 和氣霽々한 가운데서 投票를 해보
십시오.....

(場內騷然)
「退場 아십니까...」(場內騷然) 그러면
여보십시오 여분은 이 憲法改正이라는 것이
무슨.....
이보다 더 重要한 것 없다고 말하는 분은 말
하는데 亦是 重要한 事인데 우리는 自由黨
心이 없이 말이지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말이지요 空然히 말이지요 空然히 投票途中
에 있어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보기에 疑心이 난다는 것입니다 當初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大勢는 벌써 決定된 줄 아는데 이것
을 가지구서 이것만 자꾸 이렇게 日字를
굴고 議論이 생긴 必要가 없나 이 말이지요...
「아니요」 「그런데」 하는 이 있음)

(場內騷然)
아니 그렇게 反對하지 말고...나 그렇게
여러분에게 反對할 사람도 아니요 하니까
생각에 말이야 絕對 秘密投票을 하자는
秘密이라는 것은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秘密이 아니라 알이요 空然의 것으로 그것을
議論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것을 認識할
수록 하는 것이 이것이 秘密 投票의 精神입
니까 하니까 그것을 保障하는데 何等의
異議이 없지요 하니까 나는 알리지 않겠
우리 二百名 國會議員 마음수에 아니요 아니

있는 것만 가지고 왜 이것만 가지고서 異議
할 必要가 없지 않느냐 말이지요 하니까 여
기에 말이지요 한번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
면 假令 다른 投票에 있어서는 滿半數로
決定한다고 할 때에는 말이지 假令 無効投票
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何等影響이 없
습니까.....
「그만되고」 하는 이 있음 (場內騷然)
「時間 보내지 말아」 하는 이 있음)
動議하려고 하는데... (場內騷然)
해 이렇게 야단칠이야... 投票方法에 있어서
動議하는데 해 못해...
○議長(申復) 조용하세요 (要領만 이야
기 하세요)
○金教習議員(續) 우리가 말이야 어찌
以來로 紛亂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
면 아니요 아니요 하는 것만 容觀的으로 認識하
게 되기 때문에 問題가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認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傍聽席에 對해서 부끄럽지 않소...
(場內騷然)
「退場시켜 안 돼」 하는 이 있음)
投票할 하지 말자는 動議하든지 그런 것만
못할 것이지만 그方法에 있어서 어떠한 方法
을 取하면 자유로운 投票에 있어서 할 수
가 있느냐 하는 것만 해 못해...
「方法은 이미 決定되어가지고 施行途
中에 있고」 하는 이 있음)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말할 말이지요 反對할 때야지 中途에서 무
슨 反對야... 왜 우리가 말 못할 자리가 아
자리가...
「그런데 起立해요」 하는 이 있음)
이야기를 할지... 起立이라니 우리는 벌써
投票로 하게 되었는데 무슨 소리가...
「어제 이야기하고」 하는 이 있음)
이야기를 하게 해야지...
「그런데」 하는 이 있음)

(場內騷然)
「退場 아십니까...」(場內騷然) 그러면
여보십시오 여분은 이 憲法改正이라는 것이
무슨.....
이보다 더 重要한 것 없다고 말하는 분은 말
하는데 亦是 重要한 事인데 우리는 自由黨
心이 없이 말이지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말이지요 空然히 말이지요 空然히 投票途中
에 있어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보기에 疑心이 난다는 것입니다 當初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大勢는 벌써 決定된 줄 아는데 이것
을 가지구서 이것만 자꾸 이렇게 日字를
굴고 議論이 생긴 必要가 없나 이 말이지요...
「아니요」 「그런데」 하는 이 있음)

(場內騷然)
아니 그렇게 反對하지 말고...나 그렇게
여러분에게 反對할 사람도 아니요 하니까
생각에 말이야 絕對 秘密投票을 하자는
秘密이라는 것은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秘密이 아니라 알이요 空然의 것으로 그것을
議論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것을 認識할
수록 하는 것이 이것이 秘密 投票의 精神입
니까 하니까 그것을 保障하는데 何等의
異議이 없지요 하니까 나는 알리지 않겠
우리 二百名 國會議員 마음수에 아니요 아니

있는 것만 가지고 왜 이것만 가지고서 異議
할 必要가 없지 않느냐 말이지요 하니까 여
기에 말이지요 한번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
면 假令 다른 投票에 있어서는 滿半數로
決定한다고 할 때에는 말이지 假令 無効投票
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何等影響이 없
습니까.....
「그만되고」 하는 이 있음 (場內騷然)
「時間 보내지 말아」 하는 이 있음)
動議하려고 하는데... (場內騷然)
해 이렇게 야단칠이야... 投票方法에 있어서
動議하는데 해 못해...
○議長(申復) 조용하세요 (要領만 이야
기 하세요)
○金教習議員(續) 우리가 말이야 어찌
以來로 紛亂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
면 아니요 아니요 하는 것만 容觀的으로 認識하
게 되기 때문에 問題가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認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傍聽席에 對해서 부끄럽지 않소...
(場內騷然)
「退場시켜 안 돼」 하는 이 있음)
投票할 하지 말자는 動議하든지 그런 것만
못할 것이지만 그方法에 있어서 어떠한 方法
을 取하면 자유로운 投票에 있어서 할 수
가 있느냐 하는 것만 해 못해...
「方法은 이미 決定되어가지고 施行途
中에 있고」 하는 이 있음)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말할 말이지요 反對할 때야지 中途에서 무
슨 反對야... 왜 우리가 말 못할 자리가 아
자리가...
「그런데 起立해요」 하는 이 있음)
이야기를 할지... 起立이라니 우리는 벌써
投票로 하게 되었는데 무슨 소리가...
「어제 이야기하고」 하는 이 있음)
이야기를 하게 해야지...
「그런데」 하는 이 있음)

(場內騷然)
「退場 아십니까...」(場內騷然) 그러면
여보십시오 여분은 이 憲法改正이라는 것이
무슨.....
이보다 더 重要한 것 없다고 말하는 분은 말
하는데 亦是 重要한 事인데 우리는 自由黨
心이 없이 말이지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말이지요 空然히 말이지요 空然히 投票途中
에 있어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보기에 疑心이 난다는 것입니다 當初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大勢는 벌써 決定된 줄 아는데 이것
을 가지구서 이것만 자꾸 이렇게 日字를
굴고 議論이 생긴 必要가 없나 이 말이지요...
「아니요」 「그런데」 하는 이 있음)

(場內騷然)
아니 그렇게 反對하지 말고...나 그렇게
여러분에게 反對할 사람도 아니요 하니까
생각에 말이야 絕對 秘密投票을 하자는
秘密이라는 것은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秘密이 아니라 알이요 空然의 것으로 그것을
議論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것을 認識할
수록 하는 것이 이것이 秘密 投票의 精神입
니까 하니까 그것을 保障하는데 何等의
異議이 없지요 하니까 나는 알리지 않겠
우리 二百名 國會議員 마음수에 아니요 아니

있는 것만 가지고 왜 이것만 가지고서 異議
할 必要가 없지 않느냐 말이지요 하니까 여
기에 말이지요 한번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
면 假令 다른 投票에 있어서는 滿半數로
決定한다고 할 때에는 말이지 假令 無効投票
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何等影響이 없
습니까.....
「그만되고」 하는 이 있음 (場內騷然)
「時間 보내지 말아」 하는 이 있음)
動議하려고 하는데... (場內騷然)
해 이렇게 야단칠이야... 投票方法에 있어서
動議하는데 해 못해...
○議長(申復) 조용하세요 (要領만 이야
기 하세요)
○金教習議員(續) 우리가 말이야 어찌
以來로 紛亂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
면 아니요 아니요 하는 것만 容觀的으로 認識하
게 되기 때문에 問題가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認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傍聽席에 對해서 부끄럽지 않소...
(場內騷然)
「退場시켜 안 돼」 하는 이 있음)
投票할 하지 말자는 動議하든지 그런 것만
못할 것이지만 그方法에 있어서 어떠한 方法
을 取하면 자유로운 投票에 있어서 할 수
가 있느냐 하는 것만 해 못해...
「方法은 이미 決定되어가지고 施行途
中에 있고」 하는 이 있음)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말할 말이지요 反對할 때야지 中途에서 무
슨 反對야... 왜 우리가 말 못할 자리가 아
자리가...
「그런데 起立해요」 하는 이 있음)
이야기를 할지... 起立이라니 우리는 벌써
投票로 하게 되었는데 무슨 소리가...
「어제 이야기하고」 하는 이 있음)
이야기를 하게 해야지...
「그런데」 하는 이 있음)

(「意見이부수 意見이」하는이 있음)
가안이 있음……(場內當然)

(「夜決中에 있는이 부수 이야기야」
하는이 있음)

(「時間보낼려는것이 아니요」하는이
있음)

자꾸 되살으니가 그렇지 않음……

○議長(申設) 會議員 贊成 否決하게요

여러분 여기 次例를 여러분에게 注意를

말씀 하는이 오를 우리가 이 會議을 언제

나그릴지만 우리는 이 會議에서 會議을

하는 一말 一動이 國內의으로 國際的으로

全滿 다 公認되고 있는 이 會議한 會議員

정입니다

이자리에 우리가 會議한 일만은지 討論하고

일만은지 主眼點수가 있어 그러되 秩序만은

守衛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議

事規則에 依해서 進行하는이 原則으로는 發

표의 進行과다가 다른 意見은 이야기 할수

가 없지만 이 政府의 關係는 意見이라

하면 會議을 할 必要가 있는것입니다 또

그동안 다니라 議一 決定을 進行과다가 有

益한 意見이라고 해서 發言하는 議員이 有

다요 할지라도 할여파서 發言하면 議長이

取次하지 發言하지는 問題가 없게요 한가

한대 우리는 守衛하게 있어서 이 政府 하는

것이 適當한가 아니한가 우리가 判斷할것

입니다

(「本日까지 意見을 發言합니다」
하는이 있음)
○新設會議(會議) 一分도 發言하지는 않
아수입소……그러면 나는 말이지……생각하기

한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現在에 우리는

投票用紙를 發給 할오면 可否 否로 票도

發給하는이 發給할 그대로 發給하면 投票하고

認定하지 못합니다 다니라 반드시 可否 否

를 어떤쪽을 지워서 表示하지 말고 投票가

되면 그 表示가 표시할을 알니다

可할 지우면 否가되고 否를 지우면 可가되

고 可나 否를 다 지우면 그것이 白票라고

부수가 少게요 그런데 可를쓰고 否를 쓴것

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내주고 보면 그것

이 可나 否나 이것은 말이 합되는 것입니

다 다니라 그것을 兼帶이라고 하겠고 白票

는 兼帶가 없는것이 白票지 그렇지 않음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勸諭를 하고 宜호

投票用紙에 發給 가지 반드시 可字 否字을

다 지우면 白票로 認定한다 萬一 可할 지

우고 否를 넘기면 否가되고 否를 지우면

可할 否기면 可가되고 可와 否를 다 지우

면 兼帶이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 三千萬

大家앞에 아주 깨끗하게 表示할 하자는 이

런 것입니가 다니라 萬一에 그러한 票가

있으면 말이지 우리는 이 票를 發다가 부

이라고 할수가 없으니가 全部 無効로 하고

다시 投票할수하게 하오나……

(「그게 可也하다」하는이 있음)

계속하면 말이지 말이지……그것은 말이지

우리가 써서……우리가 可字을 發나 否字을

發나 否 表示할 못하느냐 말이지……表示할

하도부 해야지 그대야지 萬一에 저기서 그

것을 아보것도 守衛할오면 發수가 可할나

그러서 守衛로 無効로 하기로 勸諭합니다
(場內當然)

○議長(申設) 否決에 否決로 可也지 可也

지만 否 投票을 施行하게 되는데 이 投票을

行하는이 必要한 意見이라고 해서 發言을

請求해서 지방 議政會議員의 發言한것은 必

要한것은 必要한 것입니가

하지만 이것은 會議의 勸諭로 取次하기 어

려워요

(「물론」하는이 있음)

이 勸諭는 取次하기 어려운 理由는 可也는

常議會議라 말이지 特別의 會議으로 決定

할 價值가 없는 問題라 말이지 우리가

지어도 十萬의 代價로 投票이 投票할때에는

十萬의 投票한다는 敬慮하고 辨別한 마음으

로써 投票할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可字을

지우면 否가 되고 否字을 지우면 可가 되

다는것과 可字을 지우면 다 오히려 白票가

된다는것은 可字을 지우면 可字을 지우면 다

알고 있겠고 그러므로 이것은 勸諭로 取次

한것이 다니라 會議의 勸諭 意見으로 고치

기로 합니다

(「저기에 美意있읍니다」하는이 있음)

어러분 萬一 이 會議을 進히 進行하려면

別한 더 意見을 말하고 지방 政府

를 勸諭합니다

(場內當然)

(「그런말이 어디있어」하고 高聲하는이

있음)

○尹設會議(會議) 會議 守衛에 守衛요……議員

會議 守衛에 守衛하고 지방 政府에서

說明하는이 前件에 있어서 議員 守衛

放합니다 그러나 結果에 있어서 可也 지우

(名辭檢點)

名辭檢點 百七十九人 임니다
시상은 投票의는 開會합니다

(投票檢點)

投票한 結果는 宣布해 드립니다
名辭檢點가 百七十九

投票檢點가 百七十九 票을 나타
可에 七十九 否에 三十三票 衆權이 六十六

票 無効가 無效
이렇게 되면 投票決은 議決 明文에 依支해이

在精議員 三分之二의 數에 可票가 不足하
므로 이改選은 進滿한 可므로 이것은 否決

과 같은 効力이라는 것임이나 이것은 宣布
해 드려요

(「議長」하는의 있음)

주요한것이 그바면 會議時限이 아흔도 二十
分 넘지않고 是일은 이로 散會하고 來日
연時에 다시 議開續하기를 宣布합니다

(下午四時四十一分散會)